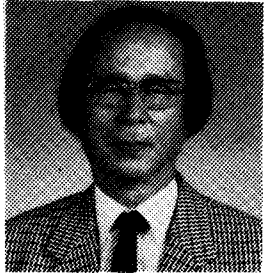


- ... 본고는 지난 2월 산림청에서 펴낸 「숲속의 문화...」
- ...문화속의 숲이란 제목의 책(출판 열화당, 값 2만...)
- ...원) 속에 임경빈 박사께서 쓴 글을 발췌 연재로 소...
- ...개하려 한다. 우리 양봉가들은 산림자원과 생업을...
- ...같이하는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업경영인 입장...
- ...에서 산림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생각한다. 특히 글 후반 부분에 가서는 생태학자들...
- ...이 (아까시나무)외래속 수종의 식재부담론에 대한...
- ...정연한 논리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반갑...
- ...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란다. 편집자주...

산림문화를 일구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회장 임경빈

1. 머리말

임학 또는 그 기술적 적용으로 생산에 이어지는 기법인 임업은 숲을 조성해서 인간생활에 소요되는 제반 가치를 얻어내자는 데 목적을 둔 과학(科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교할 때 약 65%라는 높은 산림률(山林率)을 가지고 있으나 숲으로부터 얻어내는 혜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좋은 숲으로 덮여져 있다면 목재의 생산량이 지금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우량한 것이 생산될 수 있다. 더욱이 지적해야 할 것은 임업생산이란 것은 조직화된 생산기반에서 생산품이 계속적(繼續的)으로 얻어졌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반 구축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생산조직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긴 세월과 우리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임업을 선진대열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섭섭함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개인이나 숲을 가지고 그것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 숲에서 수익이 고른 시간적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성취시키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를 내세울 수 있다. 조선조 5백년 동안 산림은 국가소유로 되면서 국가가 어떤 생산조직과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으며 더 나아가 무질서한 벌채이용만 자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항상 산의 황폐를 걱정했고 난벌에 의한 목재의 고갈이 문제되었으며 산의 황폐에 의한 수재와 한재가 항상 문제로 되었다. 따라서 업으로서의 숲의 관리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임학과 임업이란 것이 개화의 물결따라 들어오기는 했으나 나무와 숲에 주어진 대부분의 작위(作爲)는 그 이론과 기술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량목의 이용 벌채에만 힘이 쏟아져 정상적인 임업경영이란 것은 발붙일 곳이 없었다.

이러한 황폐임야와 저축적(低蓄積)의 빈약한 산림유산을 상속받은 광복후 우리의 노력은 눈물겨운 바 있었으나 아직 미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녹화로 홍수해를 격감시키고 토사유출을 막고 수리를 좋게 조절해간 큰 업적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해냈으며 이 점은 세계적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해내는데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적용에 의한 두뇌적 성과였느냐 아니면 근육노동에 의한 땀의 결정이었느냐가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상관할 것없이 그 성과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익효용(公益效用)을 주된 보전적 임야와 목재생산 등 경제재적 물질(經濟財的物質)의 생산에 주안

을 두는 생산임지로 나누어 고도의 기술을 경주해서 가치생산의 극대화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 갈 때이다. 최근 자연환경이 중요시되면서 공익림(公益林)의 뜻이 강조되고 있어서 임업인의 산림관리에 대한 인식과 기술향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성을 가지고 요구되고 있다. 물론 임업에 있어서 경제효율성만을 추구하여서는 영속성(永續性)을 잃게 되는 기능이 높다.

다시 말해서 임업은 산림생태계의 순환기능을 전제로 해서 스스로 수확규제를 하고 숲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존하셔서 성립되어 온 것이다.

이때 우리는 나무와 숲이 그간 우리 인류와 어떤 관련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산림문화라던가 숲이 인류에 준 혜택이라든지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업은 바로 그것이 산림문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숲의 기능 중에 문화적 기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숲이 사람들에게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다. 이것은 숲이 가지는 문화적 기능이고 산림문화라는 것과는 뜻에 차이가 있다.

문화의 뜻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어서 형성시켜 온 물질양면의 성과」라 하는데 의식주를 비롯해서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정치 등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풀이된다. 산림문화는 「숲과 인간이 서로 관련하는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사람과 숲의 상관양식(인간의 행동양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인류의 동적 작용이 문화이고 이것이 숲과의 관련에 뿌리를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산림문화라고 인식된다. 문화는 지

역에 따른 개개의 여러가지 형태의 것이 있으므로 산림문화에 있어서도 지역성이 성립된다. 이것은 마치 임업이 지역성을 띠고 있다는 것에 연결된다.

2. 개국과 숲 그리고 물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건국할 때 그곳은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의 신시(神市)였다고 한다. 조선족은 우주의 광명이 그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태백산의 숲을 광명신(光明神)이 거처하는 곳으로 믿었으며 그 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기 거주지 부근에 숲을 길러 태백산의 것과 같은 속성으로 보고 그 숲을 「수두」라 했으며 이때 수두는 신단(神壇)을 뜻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제를 올리고 수두 즉 수림에 금줄을 매어 정결을 꾀하였다. 수두에는 단군이 있었다.

이때 신단수를 어떤 식물학상의 나무로 생각하여 박달나무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주의 구조를 상징하는 개념적인 나무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태백산에 무성하게 자라는 박달나무의 수림 근처에 신사를 차렸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주의 생명들을 양육하기 위한 우주목(宇宙木) 또는 세계목(世界木)으로 보는 측면이 더 타당할 것이 아닌가 해 본다.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보고 그 나무는 죽음이 없는 발전적이며 영생하는 건강을 지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하늘은 그 나무의 줄기로 지탱이 되고 있고 그 나무의 꽃과 열매는 하늘의 별이고 내리는 이슬로 모든 생명의 화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 우주목을 구체적으로 상징한 것이 신목(神木)이요 신림(神林)으로서 그 안에는 신이

거주하면서 세상만사는 신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개국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나무와 숲과 더불어 열렸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녹색의 환경에서 우리 민족이 발전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래서 우리는 오래되고 큰 나무에 신령한 힘을 부여해서 인간과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가 되어 지내왔다.

고서에 단군왕검이 아들 부루(夫婁)를 보내어 하우(夏禹)를 도산(塗山)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가하면 당요(唐堯) 때에 9년 홍수가 쳐서 당요가 하우(夏禹)를 명하여 이를 다스리라 하더니 그가 8년 동안이나 공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남쪽 형산(衡山)에 이르러 흰 말을 잡아 하늘에 제사하고 성공을 빌었더니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 스스로 현이(玄夷, 조선)의 창수사자(蒼水使者)라 칭하면서 우에게 말하기를 도산에 신서(神書)가 있으니 3개월간 제개하고 이를 보라 하므로 그가 그 말대로 해서 신서를 얻게 되었고 오행통수(五行通水)의 이치를 알아 홍수를 다스리어 성공하더라는 기록이 있다. 또 부루는 바로 창수사자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단군왕검이 중국의 수재를 구제하여 주기 위해서 아들 부루를 창수사자로 임명하여 도산에 가서 하우를 만나게 하고 오행설을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친 까닭에 우는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고 왕이 된 뒤에도 부루의 덕을 칭송하면서 오행설을 나라에 퍼뜨렸다고 한다.

오행설에는 나무(木)는 오행의 시작이고 물(水)은 오행의 끝이라 했으며 흙(土)은 오행의 중간이라 했다. 오행의 순서는 곧 하늘의 차례라 했다. 이러한

국가검정품 꿀벌 노제마병·부저병 전문치료제 후미딜[®]-B(Fumidil[®]-B)

후미딜[®]-B를 사용하는 양봉가들은 “봉충판이 노랗게 되고, 빈방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노피사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후미딜[®]-B는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 노제마병(Nosema apis) 및 부저병(Faulbrood)의 전문 치료제입니다.
- 꿀벌의 폐사율을 줄여 꿀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 치료 및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에 대한 약해가 거의 없습니다.
- 빈방이 없는 충실한 봉충판을 만들어 줍니다.

포장단위 : 25g 판매가 : 10,000원

후미딜[®]-B는 사용해본 양봉가만이 다시 찾는 좋은 약입니다

일진실업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1 수입원
☎ (02)923-3470 팩스: 927-3983 (주)성일파마

시양곡 급수작업이 단번에 끝나 시양노동력으로부터 예방되는

수위자동출시양기 실용신안등록 제096017호외 11건

하나의 시양탱크에 출시양기가 들어있는 전 봉군을 호스로 연결하고 한번 시양 밸브를 열면 출시양기는 수위감지 부저가 있어 각군마다 자동으로 시양과 시양량이 조절된다.

‘97신제품의 성능 : ■특하등록이 된 출시양기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노즐 막힘이 없고 시양은 더욱 빠르며, 시양액 넘침이 전혀 없고 견고하여 수명이 반 영구적이다. ■시양실베징 방지막 부착으로 빠져죽는 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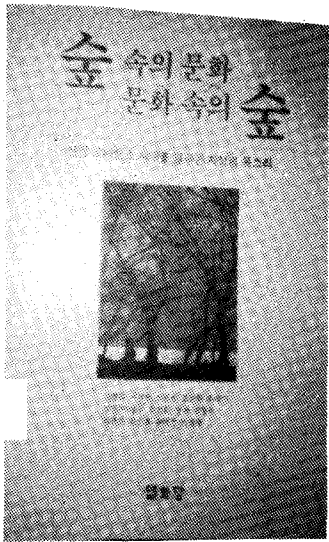
좋은 점 : ■기존보다 몇 백배 이상의 일손 절감과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군세와 관계없이 적은 량부터 많은 량까지 각군마다 시양관리할 수 있으므로 번식·화분·제리 생산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시양기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누구든지 시양할 수 있다.

- 취급품목 : ■수위자동출시양기 ■수위자동출급수기
- 수위자동평면시양기 ■시양필터

태원산업 대표 노태원

☎ 678-850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443번지
☎ (0599) 33-9548, FAX ; (0599) 33-9548
우체국온라인 : 610667-0005227 농협온라인 : 843092-56-005836

농업의 발전은 임업과 임학



관점에서 본다면 즉 나무와 숲이 시작이고 물이 끝이라면 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산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풀이가 있다. 이것은 지금의 현대과학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인 치수의 방법이다. 숲을 만들어 치수한다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숲을 다루고 물길을 다루는데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우리의 개국의 신들이 정말 훌륭하였다고 믿어진다.

이상을 요약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시작은 장엄하고 생명의 질서를 통리(統理)하는 거대한 우주목을 바탕으로 했고 이 우주목은 곧 신의 거주처이란 것을 믿었으며 이것은 모상(模象)해서 산림 또는 신목을 정하여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는 삶의 영위를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정복은 생각할 수 없었고 친자연으로서 그 혜택 속에서 복을 얻어보겠다는 생활태도를 배양해 왔다. 그래서 자연의 훼손은 살을 초래하는 행위로 알고

나무와 숲은 지기(地氣)라는 자연의 생기를 가꾸어 주는 것으로 믿었다.

개국의 신들은 치산치수의 요체를 터득하고 있었고 나무와 숲을 다루는 이론과 기술에 뛰어났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다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국토환경을 다스리는 전문적인 집단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새삼 우리 임업인들의 긍지를 느껴본다. 나무와 숲 그리고 물 다스림은 우리 개국의 역사의 핵심이었다.

3. 산림황폐와 국력의 쇠퇴

예로부터 인류는 숲으로부터 각종 자원을 얻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곳에 따라서는 산림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고 또 곳에 따라서는 그 회복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세계의 산림분포는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다르다.

다음 세계 주요지방의 산림황폐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산림황폐와 더불어 국력이 쇠퇴해 간 보기도 있다. 역사의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1) 메소포타미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가 열린 메소포타미아지역(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놓여있는 지역)에서는 기원전 2천년 경에는 용성의 국을 이루고 산에는 숲이 우거지고 평야는 비옥해서 풍요로운 전원국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두 강은 서로 접근해서 흐르고 강물도 중간 평야지대를 관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산림의 파손과 함께 관개수로는 강물이 운송해 내리는 흙으로 알아지고 홍수가 범람해서 지형이 높아지고 물길은 변경되어 갔었다. 이 결과 관계는 어렵게 되어 갔고 농경은 쇠퇴해 갔다.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방수공사를 했지만 소용 없는 일로 되었고 자연의 큰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나라의 운세는 쇠약해지고 말았다. 숲이 준 저주의 운명이었다.

기원전 15-14세기 때 페니키아는 국제 무역이 왕성해지는데 따라 무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많은 식민도시(植民都市)를 건설하고 동양문명을 서방으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나라의 산기슭지대의 평야로서는 식량공급을 충족시킬 수 없어 숲을 끊어 개간을 하였고 또 식량구입을 위해서 울창한 시이더(Cedar) 목재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다. 특히 이집트에 대한 시이더재의 수출은 많았다고 하고 조선재로 이용되었다.

시이더 숲의 최후의 파괴는 1516~1918년까지 터어키 지배하에 있었을 시대였다. 난벌이 계속되어 산지는 황폐하고 복구불가능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제1차 대전 때 터어키는 봉쇄를 당했고 그 결과 석탄의 공급이 될 수 없어서 연료로 시이더 숲을 크게 파괴한 것이 이 숲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황폐한 이 나라의 지금의 운세는 약화되고 말았다.

(2) 페니키아
기원전 15-14세기 때 페니키아는 국제 무역이 왕성해지는데 따라 무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많은 식민도시(植民都市)를 건설하고 동양문명을 서방으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 그리스
그리스민족은 예로부터 유목(遊牧)을 업으로 해왔으나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해양으로 진출하고 농경업도 개량되어 갔었다. 옛적 그리스의 국토는 산에 숲이 번성하고 평야는 비옥하여 다량의 곡물을 생산하고 관개시설도 좋았고 농경의 방법도 진보해 있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더욱 넓은 농지가 필요하게 되어서 숲을 끊어

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식민지를 개설한 결과 농경을 하는 것보다는 올리브나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실수의 재배를 위하여서는 평지보다는 산지나 구릉지가 더 알맞아서 산지의 숲이 벌채의 대상으로 되었다. 또 페르시아와 몇 차례 전쟁을 하는 통에(전 492-449) 국토는 황폐되고 관개시설도 파괴되면서 국민들은 농경을 포기하고 산지로 들어가 방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산지의 황폐는 촉진되고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의 황폐는 심각해져 갔다.

그리스의 번영은 해양경제로 이루어지고 조선용으로 다량의 목재를 필요로 했으며 또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다량의 전함용재를 필요로 하였다.

그때 그리스 정부는 국내의 목재자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산림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신앙으로 산을 사랑하고 숲을 외경하는 기풍도 있었다.

그러나 숲이 황폐되자 그러한 노력과 배경도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산과 숲은 황폐하기 이전에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4) 마야

기원전 2세기쯤 급격히 발달한 문화가 나타나서 돌조각, 건축, 상형문자(象形文字), 정밀한 역법(曆法), 그리고 복잡한 종교의식을 가졌던 마야문화는 580~630년 사이에 이상하게도 1400명의 국민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그 자취를 감추고 약간의 유적만 남기고 말았다.

이 불가사의한 마야문화의 소멸을 연구한 미국의 지질학자 쿡쿠박사는 소택지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구릉지는 과거 비옥한 농지였는데 숲의 파괴에 원인이서 빗물에 토양이 유실되고 못을 메우고 토양의 생산력을 낮추고 호수를 통한 교통의 편리성도 상실되고 저습지는 말라리아와 황열병의 유행의 원인이 되어 그 민족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황홀한 역사의 영광도 숲 앞에 항복한 증거를 또 한번 찾을 수 있다.

(5) 이탈리아

기원전 시(市)로부터 발전한 로마가 왕정기(王政期) 및 공화정기(共和政期)를 거쳐 지중해 주변에 큰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그 역사가 이태리의 역사를 대신할 정도로까지 발달하였다.

이태리의 산림은 알렉산더대왕의 페르시아원정 이래 그리스의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한 다량의 목재를 공급했었다.

기원전 510년경에는 이태리 반도의 남쪽에 있었던 그리스 식민지부근의 산에서 나무가 난벌되었고 그 결과 토사의 유출이 심해서 농경지를 못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구는 알아지고 홍수가 범람해서 저습지도 변하고 주거지로 쓰일 수가 없어서 농민들은 할 수 없이 평야지대를 버리고 높은 산지로 옮겨가서 그곳을 개간하였다.

또 경사지에 잘되는 올리브와 포도재배가 왕성해지자 산지의 황폐는 더 한층 촉진되고 이미 기원초기에는 농경지는 물론 산지의 황폐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숲을 복원시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산지를 가진 국가는 정말 처참하다 할 수 있다. 숲 다루기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러한 상태로 되고 만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험벗었던 산을 생활환경으로 해온 아찔한 상황을 회고해 본다. 그때 우리의 생계는 어려웠다.

4. 나무와 숲의 진화

약 35억년전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된 이래 긴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이 육지로 침입하는데 성공한 것은 약 3억 8천만년전이라 하며 이때 식물은 대거 육지로 올라왔다. 그때의 숲의 내용은 모조리 사라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당시의 풍경은 단조로워서 꽃이란 것도 없었고 새의 지저귐도 없었고 동물의 울음소리, 곤충의 비상(飛翔)같은 것도 없어서 침묵의 세계였다. 다만 미생물은 있었을 것이다.

이때를 데본기라 하는데 이때의 화석의 발견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첨단기술의 밀양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봉저소초,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봉산물 ·봉기구 ·종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

신개발품 양봉토봉 금수겸용 터널자동사양기

터널자동사양기는 벌통안의 밑바닥이나 소광대위 또는 소문앞에 자유자재로 사용할수 있으며 봄벌 증식때는 식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벌들이 2배 이상 증식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음

= 터널자동사양기 구조의 특징 =

- ① 터널자동사양기는 완전 조립식으로 제작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 ② 소문 앞쪽에 사용할 때 새로 보완된 이중터널이 되어있어 사양 급수하기에 아주 편리함
- ③ 공급실안의 문제점을 새로 보완하여 C자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벌들이 먹이를 완전히 가지고 갈 수 있어 공급실 내부는 항상 깨끗하고 노봉현상과 도봉이 일절 없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10분만 밸브를 틀면 한 밸브에 50군, 전봉군이 100cc 유입되므로 화분채취나 로얄제리 생산에 효과적이며 벌증식에 유리함

신아밀봉원 ☎ (0564) 734-3973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264-3. 김 동 순 배상
온라인 : 우체국 700385-0000982, 농협 715010-52-000420